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제목 : 교회 생활의 복

성경: 빌립보서 2장 1-4절

Tag:

1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2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마음을 품어

3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4 각각 자기 일을 돌볼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빌2:1-4)

교회 생활의 복이 무엇인가?

-구원 받는 복, 죄 사함의 복, 건강의 복, 형통의 복,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는 복, 승리하는 복, 관계 회복의 복,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복, 마귀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는 복, 천국의 복, 진리의 복...

오늘 본문은 '관계의 복'에 관한 말씀.

현재 우리나라는 비교적 건강한 시민의식이 자리잡고 있다. (물론 감시카메라가 한몫 단단히 하고 있지만, 중국에는 가장 많지만, 시민의식이 선진국 수준이라 할 수 없다. 꼭 감시 카메라만은 아니다.)

-질서의식,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려는 의식, 남에게 해를 끼치는 자에 대한 배려 의식이 민족 정신이다. (죄인에게도 인권이 있다.)

-이념은 달라도 같은 버스를 탈 수 있고, 같은 시민권이 있다. 의무와 권리는 똑 같다. (너는 아파트 당첨 안돼~?)

-헌법의 가치를 중심으로 법치를 지향하는 나라로 훌륭한 정치인들이 편리하고 행복한 나라로 만들었다. (일본은 현재 지진에 대한 패닉 상태에 빠져있다. 지진은 사람의 힘으로 항거 불능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건강한 나라가 되었다. 물론 유지하고

더욱 발전해야 하는 속제는 여전히 계속되어야 한다.

*교회도 누구보다 앞장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여 더욱 복된 교회와 가정과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힘써야 할 것이다.

1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그리스도 안에서의 권면;교회 안에서의 권면;교회 문화의 유익을 위해서. 신앙생활의 유익을 위해서, 영혼구령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제안할 것이 있으면. 끊임없는 개선이 필요하다.

-건강한 권면 문화가 필요함. 어려운 것이나 유익함. 겸손함이 필수적인 자질. 수용의 성숙함이 필요함. 피해의식에서 벗어나라.

-사랑의 위로;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배려하고 위로하며 힘을 주고 격려하려는 마음이 있으면. (어려운 일을 당한 성도가 있으면, 건강이나 경제적으로나, 관계로나 힘겨운 일이 있으면)

-성령의 교제;하나님의 감동이나, 예언이 있으면.

-긍휼이나 자비;구제할 일이 있으면.

*2절 (한마음,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2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마음을 품어

4가지 같은 말을 반복함.

마음을 같이하여; 가장 좋은 제안으로 자신의 마음을 바꾸는 것. 또는 다수결로 자신의 마음을 버리는 것.

같은 사랑으로;서로 동등한 지위로서 사랑함으로, 짝 사랑으로, 계약 사랑으로, 주도권 양보로? **가스라이팅으로?**

뜻을 합하여;같은 이념으로, 같은 가치관으로

한마음을 품어;두 사람 이상이 동일한 지향점을 향하여 함께 동행한다는 뜻.

예를 들어 통일을 어떻게 하는가? (전쟁으로, 흡수 통일, 종전으로,

이념으로, 연방으로, 공화국으로, 대통령제로, 의원내각제로, 일당제로 등등.)

3절 말씀은 구체적으로 한 마음을 품는 방법에 관한 말씀이다.

3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어차피 한 마음을 품는 것이 쉽지 않고, 어떻게 생각하면 불가능한 일이지만, 방법이 없지 않다.

-우선 두 사람이 모여 한 마음을 이룬다는 것 자체가 부부일지라도 화학적 결합이나 용접은 아니다.

-무엇이 한 마음을 만들어내는가? 무엇이 마음을 녹이는가? 무엇이 마음을 하나 되게 하는가? 그것은 오직 사랑이다.

-사람은 여러 가지 이유로 건강하고 복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한다.

-사랑만이 마음의 혈액형을 바꾼다. 오직 사랑이 마음 속의 응어리, 미움, 두려움, 경계심, 의심, 시기, 질투, 자존심, 수치심 등을 빚는 녹듯이 녹여낸다.

-과연 어떤 사랑이 참 사랑인가? 그것은 사랑 가운데 겸손한 마음이 있으면 참 사랑이다.

-겸손해야 이해가 되고, 용납이 되고, 참을 수 있고, 기다릴 수 있다.

-겸손이란 나보다 너를 더 낮게 여기는 마음이다. 존중과 배려. 옆 사람을 보라, 내가 영원히 가장 존중해야 할 사람이 보인다면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겸손이란 상대를 속이려는 속임수가 아니다.

-어떻게 겸손이 가능한가? 오직 겸손은 진리를 향한 열정으로 가능하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가능하다. 내 안에 예수님을 향한 믿음, 천국의 소망, 진리를 향한 열정이 있으면 내 속에 있는 죄인을 볼 수 있게 되고, 구원받으/구원 받아야 할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상대방의 죄도 무절러야 할 죄가 아닌, 구원받아야 할 죄인의

모습으로 볼 수 있게 되고, 그의 모습에서 동정심/배워야 할 점들이 보이게 된다.

-어떻게 내가 자존심을 버리면서까지 희생하면서도 / 자신의 안전을/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가? 진리가 나를 지키고, 천군 천사가 나를 지키고, 예수님의 권세가 나를 지킨다.

-오직 예수 없는 겸손은 자신을 부끄럽게 만들고, 초라하게 만든다.

4 각각 자기 일을 돌볼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4절 말씀은 우선 순서에 관한 말씀이다.

-우선은 자기 일을 돌봐야 한다.

-자기 일, 자기 가정, 자기 몸, 자기 의무, 자기 개발, 자기 경건, 자기 경제 등을 돌보아야 한다.

-그러나 그러는 중에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봐야 한다.

-자기일에 치우쳐 돕는 일에 소홀하거나,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거나, 베풀 수 있는데도 베풀지 않거나 하지 말라는 뜻이다.

-마귀에게, 죄에게, 사기꾼에게, 사치에, 허송세월에, 자기 쾌락에 시간과 돈을 빼앗기느니, 도움이 필요한 형제에게 베풀라는 뜻이다.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는 말씀은 원래 본문에는 2절 서두에 나오는 말씀인데 번역하면서 4절 마지막에 넣음으로 문장을 깔끔하게 만들었다.

-문장의 의미는 바울을 기쁘게 하라는 말씀이지만, 목회자를 기쁘게 하라는 말도 되고, 주를 기쁘게 하라는 말도 되고, 스스로를 기쁘게 하라는 말도 된다.

-‘한 마음’이 사람을 기쁘게 하고, 겸손이 마음을 기쁘게 하고, 사랑이 마음을 기쁘게 하고, 다른 사람을 돌보는 것이 마음을 기쁘게 한다.

-이것이 진정한 교회 생활의 복이라 할 수 있다.

-위해서 기도할 것이 있는가?

- 누군가를 위해서 예언할 것이 있는가?
- 누군가를 위해서 도와야 할 것이 있는가?
- 누군가를 응원할 말이 있는가?
- 누군가를 권면할 말이 있는가?
- 먼저 한 마음을 품어라.
- 먼저 사랑하라.
- 먼저 겸손하라.
- 먼저 진리 안에 거하라.
- 먼저 돌보아 주어라.

그리하면 모두에게 기쁨이 임하고, 하나님의 기적이 베풀어질 것이다. 아멘.

관계의 복을 기원합니다.

교회생활을 통해서 성도의 교제를 통한 복을 기원합니다.

서로 사랑하며, 위로하며, 기도하며, 예언하며, 돕기를 다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행복이며, 의무이며, 기쁨임을 고백합니다.

먼저 겸손하게/사랑하게/ 한 마음을 품게 하소서.

먼저 진리안에 거하며, 먼저 돌보아주는 성도 되기로 다짐합니다.

결단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소서.

아멘.

<찬양예배>

제목 : 스스로 하는 훈련

성경: 히브리서 12장 1-13절(표준새번역)

Tag:

1 <주님의 훈련>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 때와 같이 수 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갖가지 짐과 얽매는 죄를 벗어 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달음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2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3 죄인들의 이러한 반항을 참아 내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낙심하여 지쳐 버리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4 여러분은 죄와 맞서 싸우지만, 아직 피를 흘리기까지 대항한 일은 없습니다.

5 또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자녀에게 말하듯이 하신 이 권면을 잊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주의 훈련(경건 훈련)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에게 꾸지람을 들을 때에 낙심하지 말아라.

6 주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을 훈련하시고, 자녀로 받아들이시는 자마다 채찍질하신다."

7 주께서 여러분을 훈련하시거든 그것을 견디어 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대하듯이 여러분에게 대하십니다. 부모가 훈련하지 않는 자녀가 무슨 자녀이겠습니까?

8 모든 자녀가 받는 훈련을 여러분이 받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은 사생아이지, 참 자녀가 아닙니다.

9 우리가 육신의 부모도 우리를 훈련하는 분으로 모시고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영들의 아버지께 복종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은 더욱더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10 육신의 부모는 잠시 동안 자기들의 생각대로 우리를 훈련하였지만, 영들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훈련하십니다.

11 모든 훈련은 그 당시에는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으로 생각되지만, 나중에는 이것으로 연단받은 사람들에게는 의로움이 깃든 평화로운 열매를 맺게 합니다.

12 그러므로 여러분은 나쁜 손과 힘 빠진 무릎을 꼳꼳이 세워서

13 **똑바로 걸으십시오. 그래서 저는 다리를 빠지 않고, 오히려 낮게 하십시오.** (히12:1-13)

-갖가지 짐을 벗어 버리라. 마땅히 져야 할 짐을 지기 위함이다.

-마땅히 져야 할 짐이란, 경건생활의 짐이다.

-경건생활의 짐은, 다른 모든 짐을 벗어버리기 위한 가장 가벼운 짐이다. '나의 짐은 가볍다 -마11:30.'

-가정의 짐;

-교회의 짐;

-이웃의 짐;

*육아매는 죄는 철저히 제거하라.

*죄악과는 맞서 싸우십시오.

*초등학생의 숙제(훈련)

-게으름, 나태함, 규칙적인 생활, 기초 경제공부, 질서, 친구에 대한 배려, 폭력, 도둑질, 거짓말, 불효, 불손함, 인사, 위협에 대한 경계심, 용돈공부, 탈 이념교육...

*중학생의 숙제

-신앙고백, 사춘기 극복, 지식훈련, 성 hormones 조절 훈련, 사회적 금기, 경제훈련...

*고등학생의 숙제

-자기정체성, 가치관, 진리 훈련, 직업훈련, 관계훈련, 전문지식, 일반상식, 진로진학...

*대학생의 숙제

-이성교제와 배우자 선택, 전공훈련, 기본 경제활동, 인간관계, 자기 결정 등.

?? 사랑의 매는 존재하는가?

-사랑의 매를 훈육받지 못한 부모는 사랑의 매를 사용하기 힘들다.

-부모에게는 선생을 선택할 권리가 있고, 선생은 훈육의 책임이 있다.

사랑의 복, 돌볼 때 느끼는 사랑, 사랑으로 치유되는 존재, 자신이 먼저 치유됨.

배는 항구에 정박해 있을 때 가장 안전하다.

하지만 그것이 배가 만들어진 이유는 아니다.-존 A. 슈드.

느낌은 충족 되었거나 충족되지 않은 욕구를 알려주는 신호이다.

마셜 로젠버그; '비폭력 대화' 저자

<https://replushumanlab.com>

(리플러스 대화교육 안내자, 박재연씨)

자기의 감정은 자기의 책임이다.

-confession (고백)

-comfassion (사랑)

-connection (연결)

-communication (대화)

두가지 상황을 가지고 감정에 대해 알아보자.

걱정된다 고맙다.jpg

덕수에게 엄마가 부탁한 말
일주일에 3번만 네 방을 청소하렴
이틀후 엄마는 화가 나지만 참는다.
또 이틀후에도 엄마는 화가 나지만 참는다.
또 이틀 후 엄마는 드디어 따끔하게 한마디 하기로 작정하고 덕수를
호출한다.

판단;엄마가 분명히 방 청소 하라고 했는데 왜 안했어?
(과연 덕수는 깨닫고 죄송스러워 하면서 방청소를 할까? No. 그는
까먹었다!)

비난;너 커서 뭐가 되려고 벌써부터 엄마말을 안듣니?

강요;너 당장 네 방 들어가서 네 방 청소하고 나와.

협박;용돈 안 줄 줄 알아!

조롱;네가 엄마 말 안 들으니까 그 꼬라지인거야.

비교;네 친구 덕신이 좀 봐라. 개는 방 청소도 잘하지만, 공부도 잘
해. 내가 지금 너에게 공부 잘하라고 했니? 고작 방 청소 하라고 했
어. 방 청소만이라도 제대로 하라고.

마땅시 함;학생이 자기 방 정리 정돈 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내가 너에게 설거지 하라했니, 빨래 하라 했니?

책임회피;엄마 좀 화나게 하지 좀 마. 네가 똑바로 했으면 엄마가
이러지 않아.

*옳은 나에게 틀린 네가 나에게 대항하고 있네?